

강운태시장 취임 후 국내외 투자유치 실태 살펴보니

112개 업체와 MOU... 실현율 25.9%



광주광역시
강운태 광주시장이 9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럽지역 투자유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체 2조원 중 1800억원 투자... "실제 투자 더 높일 것"

강운태 광주시장이 취임한 뒤 5차례 해외투자유치에 나서 112개 국내·외 업체와 투자유치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이 중 29개 업체가 실제 투자해 MOU 실현율이 25.9%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9일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 시장이 MOU를 체결한 업체는 국내 80곳과 국외 32곳으로 이 가운데 실제 투자가 이뤄졌거나 진행중인 곳은 29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부터 9박11일간 유럽에서의 투자유치 3건을 포함한 것으로, MOU 체결 뒤 통상 5년 내 투자까지 인정하고 실무자 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매우 높은 실현율이라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지난 4월 강 시장이 미국 LA에서

LED분야 단일 수주로는 세계 최대규모인 52억5000만달러(한화 5조7000억원 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는 투자유치가 아니어서 통계에서 제외됐다. 전체 금액으로는 2조원 중 1800억원이 투자됐거나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MOU를 실제 투자로 이끌기 위해 1주일 단위로 투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MOU 실현율과 관련해 분기마다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유럽순방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 11개월간 체결한 MOU의 실현율은 29%에 이른다"며 "MOU 체결부터 실제 투자까지의 기간이 짧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실현율

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은 MOU도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탈리아 베니스 공원을 거론하면서 "광주 중의공원도 미술전시관 기능에 국한하지 않고 음악당과 공방, 유리공연장 등 종합적인 예술공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탈리아 프리울리의 모자이크 및 유리공예 공방을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스페인과 독일 등 유럽을 방문해 모두 3억4800만달러를 유치하기로 해당 업체들과 MOU를 체결했고, 2012년 세계비엔날레 광주 유치와 광주비엔날레 홍보 등의 성과를 거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등록금 관련 민주당과 대학총장 조찬간담회에서 총장들이 굳은 표정으로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총장들 '반값 등록금' 사실상 거부

민주 지도부-대교협 간담회

"정부 재정지원 먼저... 정치 논리 안된다"

손학규대표 "대학도 혁신·자구노력해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주요대학 총장들이 9일 민주당 지도부와 의 회동에서 최근 정국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에 난색을 표명했다.

이는 대학 측이 학생·학부모와 정치권의 등록금 인하 요구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되면서 '반값 등록금'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이날 대학 총장들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값등록금 특위'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즉각적인 등록금 인하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 재정 지원이 선행된다면 대학들도 등록금 인하 노력을 하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곤란하며, 점진적으로 내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대교협 회장인 김영길 한동대 총장을 비롯,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홍익대 숙명여대 서울여대 한림대 영남대 전주대 영산대 등 사립대 총장들과 국공립대에서는 유일하게 김윤수 전남대 총장이 참석했다.

이날 총장들은 "등록금 문제는 국가·교육 경쟁력 차원의 문제로, 단순히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결정돼선 안 된다"며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가 본질"이라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학적립금 사용 문제와 관련해 "적립금을 등록금 인하를 위해

쓴다면 다른 데 투입할 비용이 없어진다"며 적립금 문제로 대학들을 매도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공립대부터 반값 등록금 정책을 먼저 시행한다는 민주당의 단계적 방침에 대해서도 "국공립대만 먼저 등록금을 절반으로 내리면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격차가 심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손학규 대표는 "등록금 문제는 국가·교육 경쟁력과 복지·민생을 잘 조화시켜야 한다"며 "대학도 국민이나 사회가 공감하는 수준의 혁신,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총인저감시설 시공사 선정 참여 공무원 해촉

姜시장 "쇄신차원에서 교체"해명

의회 "규명 미흡"...논란 지속

강운태 광주시장이 9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공무원 위원 해촉과 관련 "제도적인 문제점 보완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문제의 총인 저감시설 시공사 선정에 대해 10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긴급현안 질의에 나서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파문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유럽 순방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기자회견에서 국토해양부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 제도와 관련 ▲자격기준이 높아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공무원이 적다는 점 ▲위원회 개최 20일 전 위원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당사자의 부담이 크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시장은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상식적으로 (위원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또 위원이 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위원회)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중앙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해촉 위원 7명 중 4명이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에 1위를 준 공무원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나머지 3명 가운데 1명은 다른 업체에 1위를 줬으며, 또 다른 2명은 아예 심사에 불참했다"며 "위원회 재구성 과정에서 소통이 잘 안 돼 잡음을 일으켜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 시장의 이 같은 설명에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공무원 위원 해촉에 대해 광주시의회와 참여자 21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 계속해서 문제점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총인시설 선정과 관련된 제기된 ▲시공사 선정 후 심사위원 해촉 사유 ▲해촉 위원 7명 중 선정업체에 1위를 준 공무원들이 다수 포함된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광주시의회 조영표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총인시설 입찰절차와 업체선정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총인 처리시절 탄기 입찰 참여 업체 전체가 보증수질을 총인 법적 기준치인 0.3mg/L이하로 제시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시공비

와 유지관리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공법을 선택한 이유와, 그 업체에 높은 점수를 준 평가위원은 타당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종 선정업체인 대림산업에 설계점수 1위를 준 공무원 4명이 전격 해촉된 데 대한 시의 해명을 촉구했던 총인회의 의원도 1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장마나 기다리는데 상책

민주, 대학기부 기업에 세제 혜택 추진

민주당은 9일 사립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에 기부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대규모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5000억원 추정 예산과 관련 5개 법안 통과를 통한 저소득층 장학금 부활 ▲내년부터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사립대 반값 등

등록금 유도 등 반값 등록금 정책 실현을 위한 3단계 구상을 밝혔다.

그는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소요 예산은 약 9500억원으로, 한 학기에 정부가 5000억원만 재정지원하면 된다"라며 "사립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대학에 기부하는 사람이나 기업에 대규모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Therapy 화순

화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백신·생물의약 기업 투자의 최적지

전남 화순
백신산업 특구 지정
(2010. 11. 18)지식경제부

한약재유통센터

생물산업연구센터

녹십자 화순공장